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지원방안

장혜진 부연구위원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관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연간교육과정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다른 문화를 소개하고 알아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다문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태도 측면에서 교사는 자신의 다문화 수용력과 관련 지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실제적인 다문화교육 지도 및 지역사회 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교사의 의식 제고·전문성 신장,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다문화가정 부모 참여 유도·지원, 다문화가정 및 영유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안한다.

1.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육아지원 기관 이용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전체인구 4,950만여 명 가운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인 약 130만 명

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며 이는 2010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이다.¹⁾ 국제결혼은 2000년 11,605명에서 2010년 34,23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에 전체 결혼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3.5%에서 10.5%로 3배 증가하였다.²⁾ 결혼이민자 자녀수도 2011년 151,154명에 달하여 중요한 정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발간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방안(장명림·장혜진·권미경·한영숙, 2011)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한 것임.

1)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통계청(2011), 2010년 혼인통계 결과.

책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 이주산업의 활성화,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 이주정책의 강화 등에 따라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 가족 규모는 2020년에 35만명 수준으로 늘어나 향후 10년간 92.9%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³⁾

결혼이민자의 전체 자녀 연령분포를 보면 만 6세 이하가 61.9%로 가장 많고, 만 7~12세가 24.9%, 만 13~15세가 8.2%, 만 16~18세가 5.1%를 차지한다.⁴⁾ 다문화가정 취학 전 자녀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적응 및 성취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해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양육 및 교육 실태를 보면, 다문화가정 취학 전 자녀의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은 57.0%로 높았다.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이용률은 57.5%, 유치원 이용률은 40.0%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이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거주하고, 교육비의 부담으로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보다는 남성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의 시설이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낮은 취업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부터 다문화 가정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5세의 교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면서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표 1 참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육아지원기관에서 적응하는 모습은 개인별로 상이하지만 주로 유아의 한국어 능력과 다른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기관에서 적응을 잘 한다는 점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으며,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들과 함께 노는 가운데 친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있음을 관찰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과 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은

〈 표 1 〉 다문화가정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단위: %

구분	시설이용률	보내는 시설 또는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	기타
전체결혼이민자	57.0	40.0	57.5	1.2	1.4
여성결혼이민자	56.7	40.1	57.4	1.1	1.4
남성결혼이민자	61.5	37.4	59.0	1.8	1.8

3) 김유경(2011).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75호, 45-62.

4) 행정안전부(2011). Ibid.

영유아의 적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의 경험 및 적응 정도는 일반화될 수가 없기에 영유아 적응에 대한 연구는 영유아의 전체적 삶의 맥락을 설명하는 생태학적 변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유아가 기관에 적응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문화가정 유아 자신 내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에게도 다수의 차원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의 적응이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유아 개인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 변인을 포함시키는 접근 방법이나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육아지원기관 차원에서는 유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교사의 민감성, 교사와 유아와의 안정적인 관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수반될 때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성공적 적응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육아지원기관의 교사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사가 지닌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적응 및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교육 현황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육아지원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

문화교육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교사의 인식 및 태도가 다문화교육에 미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교육 현황

가.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교육 실시 여부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⁵⁾, 전체 응답한 교사 중 56.3%가 현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61.2%)이 높은 반면, 유치원에서는 실시하고 있다는 경우(73.8%)가 월등히 많았다. 지역별로 실시여부를 확인하면, 대도시에서 가장 많았고 읍면과 중소도시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문화 유아를 담당하는 경우, 교사 경력이 많은 경우, 다문화 연수 경험을 지닌 교사의 경우 기관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다문화교육 내용 및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내용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편견, 평등, 협력, 문화 정체성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5) 설문조사는 육아지원기관 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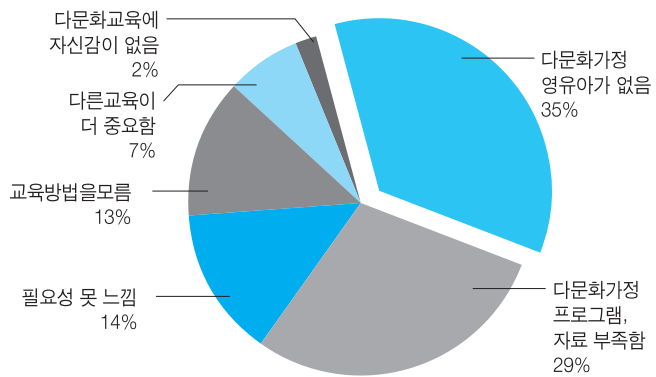
의 다문화교육이 다른 문화를 소개하고 알아보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내용과 수준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유형을 알아본 결과, 연간교육과정에 구성하여 연중 실시하는 경우(29.6%)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였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연중 실시(29.1%), 교사 재량으로 관련된 주제 실행 시 실시(18.9%)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육아지원기관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특정 주제로 일정기간 집중실시(9.8%), 외부업체를 통한 실시(9.1%),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1.9%) 실시하고 있으나 비교적 많이 사용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어린이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연중 실시하는 경우(31.3%), 유치원에서는 연간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연중 실시하는 유형(33.6%)이 가장 많았다.

다.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기관에 없기 때문이었으며(35.4%), 그 다음은 다

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자료의 부족(28.7%)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나 다문화교육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소수 의견이지만 다문화교육보다 다른 교육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경우나 다문화교육에 자신감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 다문화가정 영유아 담당 여부, 교사 경력, 다문화 연수 경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담당하지 않는 교사는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기관에 없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읍면지역이나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자료의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읍면지역에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많지만 자료가 부족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우며, 대도시에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없다는 이유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라. 다문화교육 실시 관련 어려운 점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운 점은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31.2%)과 다문화교육 수업 자료 부족(25.0%)이었으며 이 외에도 다문화 수업 준비 시간 부족(15.3%), 다문화교육 수업 기술 부족(12.5%), 다문화가정 영유아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7%), 일반가정 영유아 및 부모의 편견 및 선입견(7.6%)을 지적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의 교사, 경력이 짧거나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 더욱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다문화교육 수업 자료 부족과 함께 다문화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 다문화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수업 자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 다문화 연수 경험 및 만족도

다문화 연수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16.5%)보다는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다문화 연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의 교사가 더 높게 인식하였으나 실제로 다문화 연수를 받은 비율은 읍면지역(12.1%)에서 가장 낮으며 중소도시(16.1%), 광역시(23.2%) 순서대로 교사가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많아 교사가 연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지만, 연수의 기회가 부족하고 연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제약 조건

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의 만족도는 3.84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에 근접했으나 매우 만족하는 교사는 13%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연수의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이라 할 수 없다. 연수 만족도가 낮은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수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심도 있는 연수가 아니었음을 지적하였다. 연수 기회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영유아 담당 경험이나 연수 경험 여부에 따라 수준별로 차별화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 연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태도

가. 다문화교육의 의미 이해

다문화교육의 의미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해진다. 다문화교육 의미에 대한 교사의 응답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영유아의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교육이라 이해하는 비율(45.8%)이 가장 높았고, 일반 가정 영유아를 포함하는 시민 교육(42.1%), 다문화 영유아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10.1%)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이 다문화가정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이해하는 교사 비율이 낮음을 볼 때,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적극적인 역량 제고 측면보다는 여전히 사회 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 표 2 〉 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 다문화교육의 의미

단위: %(명)

구분	사회 적응 위한 교육	역량 제고 위한 교육	다문화·일반가정 시민 교육	기타	계	X ² (df)
전체	45.8	10.1	42.1	2.0	100.0(1,171)	
기관형태						
어린이집	54.0	7.7	35.6	2.7	100.0(582)	37.72(3)***
유치원	37.7	12.4	48.6	1.4	100.0(589)	
지역						
광역시	38.6	9.8	48.6	3.1	100.0(389)	16.35(6)**
중소도시	48.1	10.7	40.2	0.9	100.0(214)	
읍면지역	49.8	10.0	38.4	1.8	100.0(568)	
다문화 연수 경험						
있음	38.7	11.5	47.6	2.1	100.0(191)	4.60(3)*
없음	47.1	9.8	41.0	2.0	100.0(980)	

* $p < .05$, ** $p < .01$, *** $p < .001$.

인식되고 있다.

교사가 이해하는 다문화교육의 의미는 기관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린이집 교사는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교육(54.0%)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반면, 유치원 교사는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영유아를 포함하는 시민 교육(48.6%)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소재 기관 교사들이 시민 교육(48.6%)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기관의 교사들에서는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교육(48.1%, 49.8%)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교사의 다문화 연수 경험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어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 집단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영유아를 포함하는 시민 교육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2 참조).

나. 다문화 관련 지식

교사들이 지닌 다문화 관련 지식을 다문화 개념, 다문화가정 형성 및 특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 다문화교육 요소 및 지도 방법으로 구분하여 자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 개념, 다문화가정 형성 및 특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해 수준 측면에서는 90% 내외가 긍정적이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다문화교육 요소 및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해 정도가 낮다고 평가한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다문화교육 요소 및 지도에 대해서는 57%의 교사만이 자신의 이해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사 경력이 많고,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담당하고, 다문화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 다문화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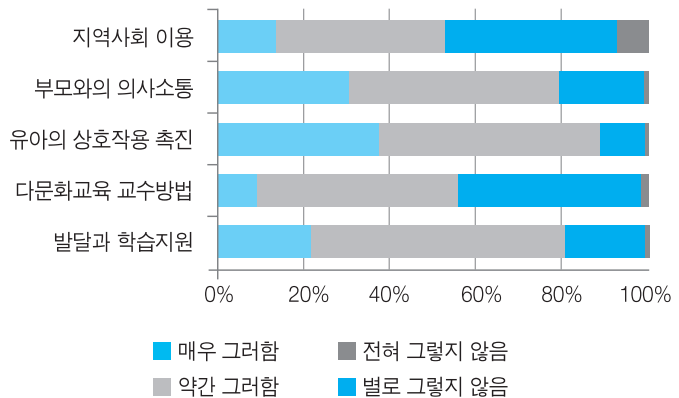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다문화 수용력, 새로운 문화에의 호기심, 편견 및 선입견 거부 의지,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평등한 대우, 다문화가정 부모에 대한 태도, 다문화 관련 질문 격려,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강조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자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태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째, 다문화 현상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자신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다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높으며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고 편견 및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태도에 관해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차별하지 않고, 활동 중에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편이지만,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다문화 관련 질문을 격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교사가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니고는 있으나 다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라. 다문화교육 효능감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효능감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과 학습지원정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수방법 능숙 정도,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촉진 정도,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한 다문화가정 부모 지원 정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그림 2 참조).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과 학습 지원에 대해 자신의 효능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교사는 80.7%에 달했으며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 다문화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촉진,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보인 반면,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이나 지역사회를 이용한 다문화가정 부모 지원에 대해서는 45% 정도의 교사가 자신감이 부족하였다. 다문화교육 관련 능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경력이나 다문화가정 영유아 담당 여부 외에 다문화 연수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2]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효능감 평가

마.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

교사가 인식하는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영유아가 사회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자라는 데(58.8%) 있었으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사회에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24.1%),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학습 지원(9.7%), 일반 가정 영유아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의 기회 제공(7.4%)을 이유로 들었다.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논의에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넘어서 일반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학습 지원보다 한국 사회로의 통합 문제를 중요시하였다.

바. 다문화 시대의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

다문화 시대의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로 일반 영유아와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는 교사(53.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정서를 잘 이해해 주는 교사(38.4%)였다. 반면에 극소수 교사만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학습 지원,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소통, 다문화 프로그램 지도를 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교사가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정서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어 학습이나 프로그램 지도 측면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이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서 교사가 학습 지원보다 정서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4.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방안

가. 교사의 인식 제고 및 전문성 신장

육아지원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은 여러 변인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지만 교사는 기관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기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의 형태는 교사가 다문화를 인식하는 방법 및 대하는 태도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지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보면 대부분 교사는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 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 사회 및 구성원의 편견, 다문화교육 지도 방법 부족 등을 다문화교육 실천의 어려움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교사가 지닌 다문화 관련 지식이나 다문화 교수 방법이 부족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다문화가정이나 영유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예비 교사에게는 다문화 관련 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현직 교사를 위해서는 직무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연수의 양적 확대와 함께 다문화 경험 여부 또는 경험 기간에 따라 연수가 다양화·차별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연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대체교사 파견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려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활용할 자료가 없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영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격무로 시달리는 교사에게 다문화교육은 부담이나 의무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급이 시급하다.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다문화가정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기관의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공적 다문화교육이 되기 위해 다문화가정 부모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교사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기관-가정 연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주양육자가 자녀양육을 이해하고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실시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다문화교육 활동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다문화가정 부모 참여 유도 및 지원

다문화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다문화가정 부모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관

의 다문화교육은 물리적으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지만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적절한 언어적·정서적 의사소통을 통해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교육·보육기관에 가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1차적으로는 관련 기관에서 전문적인 자료와 교재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지만, 기관에서는 교사가 먼저 배려하고 다가가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신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자녀 지도에 활용하여 어머니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녀양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과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라. 다문화가정 및 영유아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교사를 비롯한 사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다문화가정 및 영유아에 대한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영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가지게 되어 서구와 같은 선진국의 문화는 우열하게 인식

하고 반대로 개발도상국의 문화를 열등하게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주로 아시아 출신이라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문화 사이의 우열관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든 안 된다.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이 기본적으로 밀반침되어야 한다. 기관에서는 부모교육을

위해 다문화 관련 홍보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 영유아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상생의 교육이며,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임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은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의 토대가 될 수 있다.